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학 이 불 사 즉 망 사 이 불 학 즉 례

- 論語 (爲政篇)의 한 구절 -

창 밖 국립중앙도서관 뒤편 길은 한적하다 못해, 겨울 햇살조차 내려 앉아 졸고 있다. 차가운 바람도 따라 조는 듯, 바람의 움직임조차 느릿하다. 2004년 12월은 이렇게 가고 있다. 지난 달 말 이사를 마치고 이제 사무실도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았다. 마침 필자 자리는 창 밖으로 길이 보인다. 계절과 하루의 시작과 끝을 바라보면서 지내고 있다. 이제 12번째 글로 일년의 작업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974년 12월은 국립중앙도서관 이관 소식으로 가득하다. 소공동 현재의 모 호텔이 있는 자리에 있던 국립중앙도서관이 11월 5일부터 임시 휴관하고 25일간 이전 준비를 한 끝에 12월 2일 남산에 있는 이전 어린이회관 건물로 옮겼다. 지하 4층 지상 14층짜리 대규모 건물이 국가를 대표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은 이 때부터 남산 시절을 시작한다. 우선 단 25일만에 도서관을 이관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 아무튼, 새로 이전한 도서관은 이전보다 약 3.5배 큰 4,811평짜리 건물로, 1,152석의 열람석(이중에서 일반열람실은 7개실 660석)을 갖추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연구실도 10개에 60석이 있었다고 한다. 이후로 많은 사람이 남산에서 새벽부터 줄을 서서 도서관을 이용한 기억 한 자락씩을 가지게 된다. 지금도 가끔 남산길을 지나다 그 건물을 보면 필자도 학생 때 종종 가 보았던 그 시절 도서관을 떠올린다. 이제는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건물은 여전히 그 위용(?)을 자랑하는 듯, 까마득한 계단 위에 남산 위 소나무처럼 서 있다. 《도협월보》 10월호 'KLA코너' "小公洞 六번지"란 제목의 짧은 글에는 당시 국립중앙도서관 이전을 옆에서 바라보던 한 도서관인의 소회가 드러나 있다. 소공동 6번지에 있던 이전 국립중앙도서관 앞에는 작은 화단이 있었으나 보다. 그 화단에는 한 그루의 향나무가 있었다고

한다. 그 향나무가 도서관이 이전하게 되면 따라 가게될지, 아니면 다른 주인을 맞이할 것인지 걱정하면서, “이러한 운명을 맞이한 이 향나무를 아는 이는 측은한 愍念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이 향나무는 오히려 主人을 걱정한다. 그래서 더욱 孤高하다.”라고 적고 있다. 그러면서 이어 “小公洞 6번지를 이 향나무와 함께 반세기동안이나 지켜온 국립도서관은 호텔에 정든 번지를 어쩔수없이 넘겨주고 떠나게 되었지만 그의 이전에 대하여서는 당초부터 큰 관심과 물의를 일으켜 왔다. 국가 중앙도서관으로서 그간의 침체를 벗어나 이상적인 시설과 장소로 새로운 면모를 갖추어야 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주장은 도서관계에서는 물론이지만 각계에서도 큰 관심을 표명하였고 더욱이 우리나라 兩大政黨에서도 이 문제를 일시 擧論한바 있었다. 어쨌든 국립도서관은 풍치좋은(?) 높은 곳의 고층건물로 이전하게 되었다. 시설도 소공동 6번지의 3배나 더 넓다고 한다. 이만한 곳으로 이전하게 된 것만으로도 발전적(?) 이전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가 바라는 바는 아니었다. 이제는 옛 소공동 6번지의 主人인 국립중앙도서관이 이상적으로 발전되기를 충심으로 바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여기 언급한 여러 가지 논의는 이미 2월호와 7월호에서도 잠시 언급한 바 있다. 이러 저러한 사정을 뒤로 하고 남산 새 건물로 이전한 국립중앙도서관은 이어 12월 2일 오전 10시 문교부장관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가지고, 당시 대통령의 휘호로 제작된 현판을 걸었다고 소식은 전한다. 12월 10일에는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가 문교부장관의 안내로 도서관을 시찰하였다. 《도서관》 1974년 11·12월호 소식에서 그 날의 일을 전하는 바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지하실의 서고로부터 13층 전시실까지 일일이 둘러보고 개관시간을 새벽으로 앞당김이 어떤가라는 등 여러 관심을 보이셨고 특히 전시실을 휴게실로 개조해서 이용자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설을 선물로 주기로 약속했다”고 적고 있다. 굳이 언제부터 새벽부터 일반열람실 이용자를 받아들였는지는 찾아보지는 않겠으나, 아마도 이전 초기에는 새벽부터 개관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도서관》지는 이 날의 사진을 몇 장 앞부분에 게재하고 있다. 당시 국무총리는 도서관 방명록에 溫故知新이라는 휘호를 직접 붓으로 써서 남겼다. 그 글씨는 지금도 국립중앙도서관에 잘 보관되어 있으리라 생각한다. 溫故知新이라는 글에 대해 생각해 본다. 옛 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안다는 뜻인데, 옛 것을 살펴 좋은 것이면 따르고, 잘못된 것이었다면 과감히 바꾸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0년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요즘 ‘관습’이라고 하는 옛 것의 위력(?)을 새삼 겪고 있는데, 당시 국무총리께서 왜 이 한 구절을 도서관에 남겼을까 궁금하다.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읽은 훌륭한 사람이 많이 나오기를 바랐을까? 그래서 개관시간도 새벽으로 앞당기기를 권하였을까? 남긴 뜻은 어떤지 알 길 없고, 빛 바랜 사진 속에 글귀 하나 남아있을 뿐이다. 아, 세월이여, 기억마저, 뜻마저 한 줌 모래처럼 날려버리는가.

허선도 국민대학 박물관장이 《도서관》 권두언을 썼는데, “學而思 思而學하는 풍토진작의 중추가 되라”고 축하의 인사를 남겼다. 또한 論語 爲政篇의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이라는 구절을 들어 국립중앙도서관이 우리 사회에서 “스스로 배우며 생각하고(學而思), 생각하며 배우

는(思而學)” 것을 통해 진리와 정의를 터득하도록 도와, 진보와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적고 있다. 그러면서 다음 해 봄에 관악산 아래로 이전하게 되는 서울대학교 도서관을 우리나라 도서관계의 양대지주라고 전제하고, 이제 이 양대지주가 거의 같은 시기에 앞서거나 뒤서거나 서울 남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무래도 우연 아닌 기연으로만 여겨진다는 생각하면서, 그런 만큼 우리의 도서관이 기능면에서도 충실과 증진을 거두고, 그 증진을 바탕으로 이 땅에 범사회적으로 “學而思 思而學” 하는 풍토가 조성되기를 간구하였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과연 그러한 과정을 거쳐 성숙해 졌는지를 생각해 보면,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후로도 몇 십 년을 지나 또다시 지금의 자리로 신축 이전한 후에야 일 반열람실을 없앨 수 있었고, 공공도서관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학의 도서관들까지 이제 독서실 기능에 질식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 바, 도대체 언제쯤에나 도서관이 “學而思 思而學”의 전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답답할 뿐이다. 고 김세익 선생은 “한 나라의 도서관을 알려면 국립중앙도서관을 보면 짐작이 가고 그 나라의 사서의 질을 살피려면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를 보면 대략적 개념을 얻을 수 있다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번 도서관 이전을 계기로 앞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은 첫째, 기술적 향상 및 혁신을 이루고, 둘째로 전문직을 등용하고 그들의 발언권을 더욱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 제안은 전문직은 자격증 소지여부가 아니라 사명감과 지적, 기술적 숙련도가 높은 사서를 말하고, 그런 사서가 많아야 그 도서관이 발전한다는 당연한 진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세 번째로 도서관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자료구입비의 증대가 없다면 결국 도서관은 ‘독서실’로 전락하고 말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윤여택 국회도서관 해외자료국 아주과장도 새 중앙도서관에 대해 넓은 건물로 이전했다는 것만으로는 ‘비전’이 될 수 없으므로, 최소의 규모로 최대의 기능발휘를 하여 국가문헌의 보고로서 효율적 문화의 전당으로서 알찬 새로운 도서관으로서의 혁신을 바란다고 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남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1955년부터 소공동 국립중앙도서관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던 한국도서관협회도 12월 15일 이전한 국립중앙도서관 지하1층에 새롭게 사무실을 마련했다. 협회 사무실 이전을 계기로 우리나라 전체 도서관 발전의 상징인 “도협회관” 건립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고 《도협월보》는 소식에 적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당시 일본의 明治維新 때부터 2차대전 종전까지 90일간의 일본 외교비사를 담은 ‘日本外務省陸海軍省文書’를 우리말로 옮겨 책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 이 문서는 245만 페이지에 달하는 마이크로필름 자료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책자로 만드는 사업이었다. 2백쪽 책으로 무려 2만5천권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의 작업이다. 이 자료는 2차대전 종전 직후 맥아더 장군이 입수한 문서로 우리말로 옮겨 책으로 만들면 근대사의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고 독립유공자들의 진면목과 공적을 찾을 수 있어 우리의 근대사 이해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중요한 사업이었다. 도서관은 바로 이같은 자료 수집과 보존, 제공을 위한 사업을 통해서 사회

에 기여하고 그 존립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 사업은 5개년 계획으로 진행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아마도 5권의 번역서를 내고는 더 이상 진행된 것 같지는 않다. 해를 넘긴 1975년 『日本外務省陸海軍省文書』이라는 서명으로 제1집부터 제5집까지 발행되었다. (발간사에 따르면 실제로 제1집은 1975년, 제2집은 1976년, 제3집부터는 1977년 발행되었다.) 제1집은 간도 영유권과 관련한 발췌문서, 제2집은 중국내에서 있었던 우리나라 민족운동사료를 번역해 수록했다. 제3집부터 제5집은 3·1운동 관련 사료를 번역해서 세 권으로 발행하였다. 요즘 간도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30년 전 발행된 이 자료가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앞으로 도서관에서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서관이 소장한 자료를 활용해서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으면 좋겠다. 언제 국회도서관을 찾아가서 이 책을 직접 봐야겠다. 생각만으로도 설렌다.

12월을 보내면서 《도협월보》는 대학도서관(임종순), 학교도서관(서장석), 현재로는 전문도서관인 특수도서관(이기정)과 도서관학 연구(심우준) 등 네 부문의 회고와 전망에 관한 글들을 실고 있다. 일일이 이 지면에서 그 내용을 소개할 수 없으나, 대체로 지난 한 해 이 코너에서 다루었던 일들과 고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면을 정리하고 있다. 그 외의 소식으로는 부산에 있는 한성여자초급대학(현 경성대학교)에 도서관학과가 신설되었다. 정원은 30명으로 1975학년부터 학생을 모집한다. 이로써 국내에는 5개교에 2년제 초급대학 및 전문학교 도서관학과가 설치되었다고 한다. 또한 최달현 교수와 손정표 교수도 이해에 1973년에 설치된 경북대학교 도서관학과

에 전임으로 부임했다는 소식도 있다.

12월 14일 한국도서관협회 이사회가 있었다. 남산의 새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기 전에 모인 이 회의에서는 사무국 이전에 관한 일이나 제13회 전국도서관대회에 관한 일 등이 안건으로 논의되었다. 전국도서관대회는 원래 10월에 개최해야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득불 12월로 연기하였으나, 결국 사무실 이전 문제 등으로 인해 1974년에는 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제13회 대회는 1975년 11월에 개최되었다. 12월 28일에 제5차 이사회가 있었다. 이 때에는 1976년 예정된 IFLA 총회를 위한 준비위원회 조직에 관한 일을 논의하였다. 당시 회의결과는 조직위원회 위원인선을 위한 5인의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30년 후인 지금과 사정이 너무도 비슷하다. 올 12월 3일 2006년 WLIC를 위한 조직위원회 발기인 총회가 있었다.

이제 1974년 한 해를 되돌아 본 짧지 않은 여정을 마친다.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고, 오늘을 생각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때로는 새로움으로, 때로는 부끄러움으로, 때로는 안타까움으로, 때로는 아쉬움으로 지난 시간을 만났다. 올 한 해 부족한 글을 읽어주신 독자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리며, 내년 1975년의 여행을 기약한다. [글: 이용훈 협회 기획부장, blackmt@hiteel.net]